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AI시대, 인적자원개발로 주도하라!

2023. 9. 25. (월) - 26.(화)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 기조강연자




KEYNOTE 1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 기회와 리스크




KEYNOTE 2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AI 시대, 인적자원개발로 주도하라!




KEYNOTE 2

김윤영

서울대학교 교수

AI 시대, 위기인가 기회인가?



KEYNOTE 3

박준영

변호사

우리들의 변호사, 회장을 맡아라

| 동시강연 주요 강연자



황성현

퀀텀인사이트 대표

뉴노멀 시대 새로운 인문조직 관리 전략



조이스오(Joyce Oh)

램리서치(LamResearch) Managing Director

혁신과 비즈니스 성공을 이끄는 조직문화



박대웅

한빛 미디어 의장

빅데이터와 AI강의



이준희

한국다음세대리더십본부 대표

유튜브 면접왕이형

채용 본능에 안되는 이유



에릭 쿵(Eric Kung)

휴먼다이나믹 그룹 회장

메타버스 시대 기업에서의 조직문화 혁신 전략



송승호

마이크로소프트 팀장

제너레이티브 AI가 불러온 미래는 창조의 변화



정흥수

홍버튼 대표

말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면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메타버스 포용 - 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의 방향

| 컨퍼런스 참관 등록 안내

등록 방법	온라인 사전 등록 HRD4U(https://www.hrd4u.or.kr/hrdconference)
등록 기한	2023년 9월 20일(수) 18:00까지
등록 비용	1일 1만원, 전일(2일) 2만원 * 현장등록 : 1일 1만5천원
등록비 납부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람과 성장을 이어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HiRD Korea

2023 September vol. 327

HiRD Korea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 | 고용노동부

주관 | HiRD Korea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일 2023년 9월 1일
발행인 김영중
편집인 윤명섭
등록번호 울산중, 라00006
등록일자 1982년 9월 29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홍보미디어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345
전화 052.714.8195
팩스 052.714.8200
제작 디자인글꼴
디자인 우선정
글 박소현
전화 051.636.1210



Cover Story

색색의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올려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2023 HRD Korea 9월호에는
 K-HRD 대축제이자, 직업능력 향상의
 장인 직업능력의 달의 활기찬 빛깔을
 담았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보 구독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HRD KOREA」는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외국인고용
 지원, 해외취업, 숙련기술장려 및 기능경기 등 국가인적자원개발
 (HRD)사업에 대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월 제작해, 무
 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게재된 외부글은 한국산업인력
 공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빛고



04 능력을 빛는 사람들

1위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으로 빛나는 미래를 만듭니다
 _ (주)정석케미칼 김용현 대표

08 NCS 돌보기

도로제조 직무분석

10 HRD Focus

2023 EPS 콘퍼런스 in 부산,
 고용허가제의 미래를 미리 보다

12 업그레이드 HRD

미래와 사람을 잇고, 역량과 성장을 연결합니다
 공단 능력개발기획부를 만나다

#기술로 #짙아



16 HRDK 인포그래픽

9월, “직업능력의 달”을 소개합니다.

20 HRDK 이야기

뉴노멀 시대, 변화에 길이 있다
 _ 황성현 컨텀인사이트 대표

24 미래를 짓다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수상작

26 상생스토리

여행의 새로운 가치를 찾다
 _ 울산착한여행

#한 단계 #성장하며



30 함께 한 걸음

아리랑 가락 찾아 떠나는 강원도 정선

34 세대공감 비즈니스

MZ세대의 일상, 제로 웨이스트

36 뜨는 키워드, 뜨는 직up

식품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푸드테크

#이어지는 #HRDK



40 읽어주는 직방

직장인을 노리는 증후군 주의보!

42 HRD 뉴스

44 독자이야기

개봉박두, 2023년 직업능력의 달!

K-HRD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하세요

직업능력개발과 인적자원개발, 그 가치를 되새기는
 K-HRD 대축제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HRD 우수기관 인증수여, 다양한 미래 일자리 체험,
 최신 HR 동향과 전략을 논하는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까지!
 다채롭게 구성된 직업능력의 달 행사는 능력으로 빛나는 오늘,
 기술로 빛는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공감하고 어울릴 수 있는 직업능력 향상의 장,
 2023년 직업능력의 달 행사를 마음껏 즐겨보세요.



1위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으로 빛나는 미래를 만듭니다

2023년 4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주)정석케미칼 김용현 대표



평사원으로 시작해 사장 자리까지 오른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 김용현 대표는 (주)정석케미칼을 오늘의 자리로 이끈 일등 공신이다. 국내 도로표지용 도로 업계 '1위' 타이틀에 만족하지 않고 전고체 전지 시장에까지 뛰어들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김용현 대표를 만나 그 위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평사원에서 CEO로, 한 기업의 과거와 현재를 이끈다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김용현 대표는 1982년, 정석케미칼의 전신인 삼우트레이딩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화학분석기능사로서 기술팀에 발령받은 그때부터, 도로를 구분하는 하얗고 노란 페인트와 옥상에 칠하는 방수페인트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페인트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게 됐다. 성실한 성품에 기술 개발자 특유의 인내심과 집요함을 가졌던 그가 인정받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주임에서 대리, 과장, 차장 대우, 부장, 상무이사까지 순탄하게 승진을 거듭하며 조직에서 제 역할을 다했다.

그가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회사에 약재가 터지며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기존 임원들이 전부 퇴사하면서부터였다.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 아래 공동관리자가 된 김용현 대표는 그때부터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으로 이곳을 바꿔가기 시작했다. “2015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정도경영을

앞세웠습니다. 업무 현장에서 갈고 닦은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으며 연구소의 각종 배기시설 및 공조시스템, 작업환경을 크게 개선했어요. 또한 사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정과 보고 절차를 표준화해 시스템 경영의 토대를 갖췄습니다.” 김용현 대표는 또한 초창기 1인당 20시간 미만이었던 직원들의 연간 교육 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늘렸고, 해외 전시회 및 연수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이 세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개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정석케미칼은 회생계획인가 후 단 10개월 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으며, 현재 직원 수 210여 명, 지난해 총매출 8백억 원을 달성하는 등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과 직원 행복

이 같은 노력은 동남아시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도 가져왔다. 특히 노



면표지용 도로인 용착식 페인트 제품이 미국의 ASTM/AASHTO/California DOT 기준을 통과하면서 국내 최초로 미국 공급망 시장에 진출하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짧은 시간, 이처럼 대단한 성장을 이뤄낸 정석케미칼의 경쟁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김용현 대표는 ‘기술력’이라는 짧고 굵은 답변을 내놓았다.

“저희는 도로 업계 1위라는 타이틀에 결코 안주하지 않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끊임 없이 연구하며 매출액의 5%를 기술개발에 투자해 왔어요. 한 예로 여름철엔 도로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에 가열된 도로 온도를 55도로 낮추는 열섬 저감 페인트를 개발해 시장의 호응을 얻었죠.”

그뿐만이 아니다. 정석케미칼은 또한 열선 없이도 얼지 않는 안티아이스팅 페인트를 개발해냈다. 이는 겨울철 차량이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 교통사고 저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만큼이나 환경과 에너지 그리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김용현 대표의 철학은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그대로 녹여져 있었다. 그는 자연과 사람에게 이로운 제품을 개발해 친환경 기업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정석케미칼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직원 복지를 기업 경영의 1순위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오랜 철학 중 하나다. 실제로 현재 정석케미칼에서는 동아리 활동 지원, 학비보조금 지원, 기숙사 제공 외에도 근로자 복리후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직원들의 힘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의 성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복지와 근무 환경을 제공해 직원들이 행복할 때, 회사 또한 한 걸음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 전고체 배터리로 도약하다

최근 정석케미칼은 또 다른 분야에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바로 차세대 전지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 덕분이다.

“저희는 도로, 합성수지, 유리알, 원전용 고화물처리비

용 설비 등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물론 노면표지용 도로시장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양길에 접어든 도로 시장에 대비해 본격적인 사업 분야의 확장을 결심했죠. 이에 R&D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에너지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기존 휴대전화와 전기차 등에 주로 사용하는 리튬이온 전지는 가볍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온 고압 환경에서 화재 등 안전성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용현 대표는 차세대 전지로서 ‘전고체 배터리’에 주목했다. 정석케미칼은 2019년부터 곧바로 핵심 물질인 황화 리튬 연구개발에 착수했고, 약 3년 후 마침내 달콤한 성공을 맛보게 된다. 전기연구원에서 완제품의 순도를 인정받은 이 황화 리튬은 미국 솔리드파워를 비롯한 유수의 국내 대기업의 관심을 끌었다. 굴지의 글로벌 자동차기업에서는 2028년 출시할 최고급 차량에 황화 리튬이 소재로 사용된 전고체 전지를 탑재하겠다고 공표했다 하니, 2030년쯤 상용화될 것이라 예측한 김 대표의 목표보다 사업은 훨씬 빠르게 순항 중이다. 김용현 대표는 현재 짓고 있

는 공장까지 완성되면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었다.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데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정석케미칼은 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친근한 기업의 얼굴을 보여준다. 작년엔 완주중고, 전주대 전북인재육성재단 등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했고 전주연탄은행, 사랑의열매, 대한적십자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복지기관에도 아낌없이 후원했다. 거기다 최근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김용현 대표는 향후 후배 기술인들을 위한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니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되는 상황. 인터뷰의 말미, 김용현 대표가 밝힌 포부에서 2030년까지 5천억 매출을 목표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정석케미칼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

“임직원 모두가 인간 가치를 존중하며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을 바탕으로 창의와 도전, 신뢰와 존중, 환경과 안전이라는 핵심가치를 실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석케미칼은 우수한 제품,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사명을 다하며 오래오래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도료제조
직무분석

기술을 담은
색을 채우다

도료제조는 피도물의 보호, 미관, 특수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안료와 수지, 용제, 첨가제를 주원료로 배합, 분산, 포장공정을 통하여 건축 용, 선박용, 자동차용, 산업용 등의 도료를 생산하는 일이다. 도료제조 직무에 대해 알아보자.



도료제조 NCS능력단위

능력단위명		수준
1	도료제조 생산계획	5
2	도료제조 표준서검토	5
3	도료제조 원재료관리	3
4	도료제조 외주관리	5
5	도료 배합설계	5
6	합성수지 배합설계	5
7	도료 생산	3
8	도료제조 공정검사	3
9	도료제조 공정개선	5
10	도료제조 설비점검	3
11	도료제조 설비관리	5
12	도료제조 품질검사	3
13	도료제조 품질관리	5
14	도료제조 안전점검	3
15	도료제조 안전관리	5
16	도료제조 환경점검	3
17	도료제조 환경관리	5
18	도료 조색	5
19	도료 신뢰성 시험	5



출처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www.ncs.go.kr)
NCS 및 학습모듈 검색

17. 화학·바이오 > 03. 정밀화학 >
02. 기능성정밀화학 > 04. 도료제조

도료 배합설계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도료제조 능력단위 가운데 도료 배합설계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은 이에 필요한 능력단위요소 중 '원재료 혼합비율 결정하기'에 대한 수행준거와 KSA(지식·기술·태도)다.

분류번호 1703020410_16v1 능력단위 명칭 도료 배합설계	
정의	도료 배합설계란 고객이 요구하는 코팅 용액을 설계하기 위하여 설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원재료 혼합비율을 결정하며 배합설계프로세스를 결정하는 능력이다.
요소	1703020410_16v1.2 원재료 혼합비율 결정하기
수행 준거	<div>2.1 요구 물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원자재를 선별할 수 있다.</div> <div>2.2 목표 물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실험방법을 선정하여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div> <div>2.3 사계절을 고려하여 도료의 저장 안정성을 실험할 수 있다.</div> <div>2.4 시험결과에 따라 원재료의 혼합비율을 확정할 수 있다.</div> <div><div>지식</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지식* 원재료의 혼합에 따른 물리·화학적 변화 예측 지식* 원료의 반응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 능력* 반응 물질의 반응에 따른 열특성 지식* 관련법류(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등)* 도료의 저장 안정성의 물리적 특성 이해</div>
	<div><div>기술</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반기 설정과 가동 기술* 분산 기술* 파일럿 운영 기술* 화학물질 관리 기술* 저장 조건 설정 기술</div>
	<div><div>태도</div><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루려는 태도* 정리정돈 습관* 신물질에 대해 학습하는 자세* 취급 물질에 대한 화학 반응을 예측하려는 자세*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자세</div>

2023 EPS 콘퍼런스 in 부산, 고용허가제의 미래를 미리 보다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 20주년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과 외국인근로자의 동반성장에 든든한 자양분이 되어온 고용허가제는 앞으로 또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게 될까? 지난 8월,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힘을 더하는 부산에서 그 답을 들어볼 수 있었다.

2023 EPS 콘퍼런스, 고용허가제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지난 8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2023 EPS 콘퍼런스 in 부산(이하 EPS 콘퍼런스)'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EPS 콘퍼런스는 2016년 처음 개최된 행사로, 고용허가제 송출국과 지자체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 EPS 콘퍼런스는 고용노동부장관, 부산광역시장, 고용허가제 송출 16개국 주한대사 및 노무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축사에 나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고용허가제의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 칭하며, "변화된



경제·사회적 상황에 맞춰 고용허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표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실질적인 방향성은 같은 날 진행된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서 제시되었다. 이 자리에서 16개 송출국 대사관, 고용노동부, 그리고 공단은 고용허가제 관련 국가별 현안 및 협력 방안을 적극 논의하였다. 또한 행사 첫날 진행된 고용허가제 우수사례 시상식은 외국인력 도입·관리에 힘쓴 사업장과 우수한 외국인근로자의 노력을 인정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되었다. 최우수 사업주로는 경기 포천 소재 '신궁전통한과'가, 최우수 근로자로는 차마라 씨(스리랑카)가 선정돼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청렴송출 퍼포먼스와 부산 개최로 더 특별했던 행사

행사 2일 차에는 공단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필리핀,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주한대사가 참여한 '청렴송출 퍼포먼스'가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Clean up corruption, Value up EPS'라는 구호 아래,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 과정의 투명성과 각국 협력관계 강화를 다짐했다. 또한 공단 외국인고용지원사업의 주요 성과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고용허가제 발전 방향 강연 등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19년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산업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16개 송출국가와의 파트너십과 고용허가제의 투명성이 강화되길 희망했다.

올해 EPS 콘퍼런스가 특별했던 이유 중 또 하나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후보지인 부산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번 행사에서 공단과 부산광역시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와 고용허가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개최 시 부산 엑스포 홍보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행사 마지막 날에는 부산엑스포 홍보관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과 동시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는 자리였기에 더 뜻깊었던 이번 2023 EPS 콘퍼런스 in 부산. 앞으로도 공단은 공정하고 안전한 고용허가제 수행을 위해 노력하며,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미래와 사람을 잇고, 역량과 성장을 연결합니다

공단 능력개발기획부를 만나다

하늘은 높아지고, 바람은 식어가는 가을의 초입. 여전히 뜨거운 열기로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있다. 직업 능력의 달을 맞아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능력개발기획부다. 높아진 개인의 역량이 기업을 키우고, 그 기업이 국가를 키운다고 말하는 그들. 선순환의 가치를 알리며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리는 능력개발기획부를 만나보았다.



선제적인 시야로 능력개발의 가치를 알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이 인적자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다. 직업능력국은 공단의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곳으로 하위에는 '능력개발기획부', '기업훈련지원부', '컨소시엄운영부', '지역산업지원부'를 둔다. 그중 능력개발기획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부서로 남다른 소명 의식이 뒤따른다고 권기승 부장은 밝힌다.

“우리 부서는 근로자나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관련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능력개발사업의 계획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기획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기업과 근로자들이 능력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 촉진 사업도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매년 9월에 열리는 직업능력의 달 행사다. 능력개발기획부는 직업능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여러 행사를 개최하고 직업능력사업 확산을 위한 인프라를 확보한다. 직업능력의 달 행사는 재직자뿐만 아니라 진로를 찾는 청년 및 구직자, 사업주 등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담당자인 정고은 과장은 직업능력의 달 행사가 스스로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는 일이라고 평한다.

“개인과 기업 사이에 접점을 둔 행사인 만큼 유익한 기회였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기업의 우수 사례를 접하기 힘든 중소기업에선 이런 행사가 신선한 전환점이 될 수 있거든요.”



능력개발에 필요한 A부터 Z까지 책임지다

작은 부속품들이 모여 전체를 움직이듯이 조직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능력개발기획부는 주목도는 낮아도, 빠트려선 안 될 특별한 사업을 도맡고 있다. 작년부터 새롭게 시작한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은 세태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한 사업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ESG 중 사회적 활동(S) 분야에 중점을 두고 청년에게는 취업역량 향상의 기회를, 기업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경력직 채용의 확대로 청년들이 노동시장 신규 진입에 대한 기회를 얻기 어려워지자 직무역량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수요가 높아졌다. 이에 공단은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비용 및 컨설팅을 지



원해 청년에게 직무훈련·일경험 기회를 부여하고 고용 가능성을 확장한다. 박새롬 과장은 본 사업이 무엇보다 청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어 중요도가 크다고 말한다.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은 공단이 기업을 지원하고, 그 기업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부여해요. 큰 틀에서 봤을 땐 역량 심화의 목적도 있지만, 진로 결정에서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능력개발기획부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HRD 포럼 등의 업무를 진행 중이다. 권기승 부장의 말에 따르면 능력개발기획부는 단위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사업 DB 관리와 같은 전산 관리 및 정보화 사업도 담당한다.

“다양한 사업을 맡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획과 총괄 업무를 진행하는 특성상 리더십이 강조됩니다. 퍼실리테이터, 즉 촉진자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잠재력을 발견하고 살려준다던가, 상호 보완하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업무 태도로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미래 인재의 발굴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꿈꾸다

사업을 꾸리고 예산이 오가는 부서 특성상, 다소 사무적인 분위기가 아닐까 하는 예상은 능력개발기획부가 있는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사라졌다. 저마다 개성과 주관은 뚜렷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런 부분이 강점이 되어 시너지로 돌아올 때가 많다고 한다.

“개인의 장점이 100% 이상 발휘될 수 있게끔 챙겨보는 편이에요. 제가 가장 중점에 두는 것은 ‘여유’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죠. 부서의 역할이나 기능적인 측면에



따라 능동적으로 부서원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부서장으로서 고마울 때가 많습니다.”

부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부서장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는 권기승 부장은 부서원들에게 배울 점을 찾거나 닳고 싶은 부분을 발견할 때가 많다. 타인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 비결은 ‘경청’이다.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하기보다는 타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자 한다는 부서장의 모습에서 능력개발기획부의 화합력을 느낄 수 있다.

“현재까지 나온 통계를 보면,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이 5% 내외 수준입니다. 5년 내로 15%까지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공단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실현하고 있는 능력개발기획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력을 개발하고, 미래 인재를 발굴하는 그들의 행보에 응원이 필요한 때다.

능력개발기획부 권기승 부장



MINI INTERVIEW



“조직과 국가를 견인할 동반성장의 해답은
인적자원에 있습니다.”

김호연 직업능력국장

4차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산업 트렌드에는 급진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디지털 대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산업의 흐름이 바뀌면서 디지털 플랫폼, 첨단, AI 등 산업 전환과 관련된 직업훈련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해졌습니다. 신기술은 미래 가치와 직결됩니다. 현재 직업능력국은 중소기업들이 신기술 훈련 부분에 초점을 맞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업능력국은 기업의 훈련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역량을 높이고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선순환의 가치를 믿습니다. 이러한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이 산업 전반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단의 저변 확대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은 시대가 바뀌어도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향해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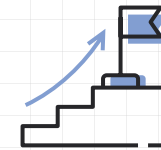
능력은 새롭게, 내일을 빛나게! 9월, “직업능력의 달”을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직업능력의 달'을 지정하여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 '직업능력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23년 직업능력의 달

올해 '직업능력의 달' 행사는 '능력은 새롭게, 내일을 빛나게'를 슬로건으로 영예의 장, 공유의 장, 경연의 장, 체험의 장 등 4개의 장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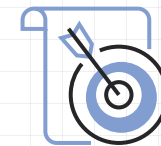
[영예의 장]

- 직업능력개발, 숙련기술장려,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앞장서 온 유공자와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합니다.
- ※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HRD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공유의 장]

-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HR 전략과 교육 방법, 최신 트렌드, 기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기업의 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모색합니다.
- ※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직업능력표준 세미나



[경연의 장]

- 사업주훈련, 일학습병행훈련 등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경진대회를 개최해 기업과 개인의 혁신 성장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인식을 확산하는 성과 공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 우수사례 경진대회(일학습병행·과정평가형 우수교육훈련과정·사업주 직업훈련개발·사업주 자격검정사업), 국가자격취득자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제14회 컨소시엄 Best of CHAMP Day, 제10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날,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체험의 장]

- 미래 일자리에 대해 이해하고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도울 진로·직업 탐색, 그리고 경험 공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 스타기술인 토크콘서트,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일경험 체험존, 미래 내모습 그리기 대회

주요 행사 미리보기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능력은 새롭게, 내일을 빛나게!”

- '23년 직업능력의 달을 기념하고, 직업능력개발 유공 훈·포장과 대한민국 명장 및 숙련기술전수자 등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합니다.
- 올해는 유공자 등 수상자, 내외빈을 모시고 9월 5일(화)에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HRD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 우수한 인적자원개발 체계를 갖춘 민간 및 공공기관에 HRD 우수기관 인증을 수여하여 각 기관이 내부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올해는 3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각 기업의 신청을 받아 9월 19일(화)에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수여식을 개최합니다.
-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되며,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 담당자 연수는 상황에 따라 진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간부문 안내 및 문의처

HRD4U : www.hrd4u.or.kr/hrdcert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 Tel. 052-714-8219 E-mail. euny8806@hrdkorea.or.kr

※ 공공부문 HRD 우수기관인증 사업 수여식은 별도 운영(한국직업능력연구원 문의 best-hrd@krivet.re.kr)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AI 시대, 인적자원개발로 주도하라!”

- HR 분야의 국내외 최신 동향 및 기업의 전략을 소개하고 저명한 석학들과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직업 능력개발의 전망을 공유합니다.
-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 등 저명인사의 기조강연과 함께, HRD, HRM, K-HRD(공공) 3개의 트랙과 네트워킹라운지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15개의 강연과 3개의 콘서트(토크콘서트·북콘서트)가 진행됩니다.
- 홀로그램 등 최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신기술관, 실무자 간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라운지·앰배서더 라운지, HR 솔루션 상담 등을 위한 기업 부스 등 EXPO도 함께 진행됩니다.

기조강연

Keynote 1 9.25(월) 10:50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인류: 기회와 리스크”
Keynote 2 9.26(화) 10:00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	“AI 시대, 인적자원개발로 주도하라!”
	서울대학교 김윤영 교수	“AI 시대: 위기인가, 기회인가?”
Keynote 3 9.26(화) 15:30	박준영 변호사	“우리들의 변호사, 희망을 말하다”

- 올해는 9월 25일(월)부터 26일(화) 양일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온·오프라인 병행 개최)에서 진행됩니다.

컨퍼런스
참관 등록 안내

- 등록 방법: 온라인 사전등록 www.hrd4u.or.kr/hrdconference
 - 등록 기한 : 2023년 9월 20일(수) 18:00까지
 - 등록 비용 : 1일 1만원, 전일(2일) 2만원 * 현장등록 : 1일 1만5천원
 - 등록비 납부 방법 : 카드결제
- ※ 자세한 사항은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문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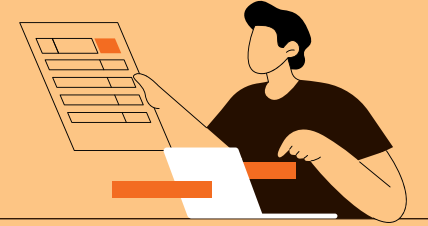
- HRD4U
www.hrd4u.or.kr/hrdconference
- 직업능력의 달 행사 운영사무국
Tel. 02-6952-9581 E-mail. 98kh5004@naver.com
카카오톡채널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기획부
Tel. 052-714-8214 E-mail. hrd_festival@hrdkorea.or.kr





대표 강현숙
퀀텀인사이트

뉴노멀 시대, 변화에 길이 있다



뉴노멀, 예측불허의 시대

인사조직 관리도 외부에 맡기는 시대가 도래했다. 퀀텀인사이트는 야후코리아, 카카오 등 대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해온 황성현 대표가 이끄는 인사조직 전문 자문기업이다. 조직 내부에서 올바른 인사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길잡이를 제공하는 게 핵심. 조직이 작고, 인사 관리 전문 인력을 갖추기 힘든 스타트업이 주요 자문 대상이기에 황성현 대표는 변화에 더욱 민감하다. 일상 곳곳에 파고든 4차산업혁명에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세대의 출현은 기존 인사 관리의 틀까지 흔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다. “전통산업 시대에는 선형으로 성장을 했어요. 투입한 자원에 정비례해 결과가 나오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회, 땀을 많이 흘린 만큼 많이 누릴 수 있는 사회였죠. 하지만 4차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도래한 뉴노멀 시대에는 이 공식이 파괴됩니다. 기하급수적 성장이 가능한 예측불허의 시대가 왔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제품 1개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례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앱 1개를 만든 후 추가 투입 비용 없이 1억 개를 팔 수도 있다. 이처럼 생산성도 경쟁자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는데 왜 기업의 인사조직 관리는 제자리걸음일까? 4차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소용돌이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변화를 요구한다.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에서는 황성현 퀀텀인사이트 대표가 예측불허의 시대에 필요한 인사조직 관리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뉴노멀 시대, 새로운 인사조직 관리 전략’은 무엇일지 미리 들여다본다.

도 예측이 안 되는 게 뉴노멀 시대의 특징이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일하는 방식 또한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굳이 출근을 안 해도, 회의실에 안 모여도, 해외에 흩어져 있어도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며 예전의 방식이 정답이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때마침 사회 구성원으로 등장한 Z세대도 신선하다. 게임 세대인 이들은 일상도 게임처럼 실시간으로 반응하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조직에서의 즉각적인 평가와 보상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처럼 한꺼번에 밀려온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기업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 황성현 대표는 일단 사람과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피라미드 구조에서 벗어날 때

“피라미드 조직 구조는 아마 피라미드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지 않았을까요? 소수의 권력자가 통치하기 효율적이니까요. 하지만 아래 단의 현업에서 결정권자가 있는 꼭대기까지 가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변화가 빠른 요즘에는 의사결정도 빨라야 합니다. 피라미드 조직 구조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죠.”

변화가 곧 생존이 되는 시대에는 단순한 소통 구조가 더욱 경쟁력이 있다. 다행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험했듯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이미 충분하다. 더불어 사람을 보는 관점도 변해야 한다. 황성현 대표는 채용 형태가 이를 대변한다고 말한다. 오랜 기간 대기업의 일반적인 채용 방식은 공채였다.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기보다 평균적 인재를 뽑는 형식이다. 일명 ‘빌드(Build) 인재형’으로 2년 정도는 연수원과

현업에서 기본 실무를 익히며 회사에 맞는 인재로 차근차근 만들어지는 것이다. 당연히 채용 인력이 성장할 때까지 생산성은 나오지 않는다. IT 기반의 3차산업혁명 이후에는 이미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뽑는 ‘바이(Buy) 인재형’이 정착했다. 하지만 뉴노멀 시대에는 변화 속도가 더 빠르다. 과거의 지식과 경험이 금세 옛것으로 전락하는 만큼 늘 새로운 역량이 요구된다. 이때 ‘바로우(Borrow) 인재형’이 등장한다.

“지금 주목받는 기술이 1~2년 뒤에는 구식이 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조직에 맞는 역량,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그때그때 빌려 쓰는 거죠. 사람을 뽑는 관점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에는 이미 이 같은 채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회사에 필요한 능력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맞춤형 인재를 발굴해 한 사람씩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또한 저명한 공학 교수가 인턴 배지를 달고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습도 구글에서는 놀랍지 않은 풍경이다.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대학이 없다면 관련 전공을 만들어 교수진을 파견하고, 졸업생을 모두 기업으로 데려오는 적극적인 산학협력도 활발하다.

언러닝, 답습하지 말고 변화하라

채용 방식과 함께 인사 관리도 변해야 한다. 뉴노멀 시대를 이끌 Z세대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황성현 대표는 이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즉각적인 보상과 인정을 원하고, 둘째, 투명한 정보 공유를 원한다.

“Z세대는 내 플레이에 따라 바로 상황이 변하고 점수가 주어지는 게임 환경에 익숙합니다. 일할 때도 평소에는 별다른 평가나 반응이 없다가 1년에 한 번, 누구에게나 동등한 보상이 주어진다면 절대 동기부여가 되지 않죠. 또 어릴 때부터 유튜브로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유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분기마다, 프로젝트마다 즉각적으로 적절한 평가와 피드백, 보상이 뒤따를 때 일의 재미를 느끼고 조직 내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는 세대. 이들 역시 공정하게 승진하고 인정받는 건 중요한 요소이다. 다만 그 과정이 느슨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더 재미있고 의미있는 곳을 찾아 조용한 퇴사를 감행할 뿐이다. 기업 입장에서 이미 결과가 나온 1년의 성과를 보상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진행 과정을 짧은 주기로 체크하

며 수시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목표 달성률을 높이는 게 효과적이다.

“이 같은 조직관리가 언제나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뉴노멀 시대에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 고유의 문화와 구성원의 특징을 반영한 새로운 인사조직 관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핵심은 한마디로 ‘언러닝(Unlearning)’입니다.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전의 성공 방정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 혁신을 위해서는 미래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 황성현 대표는 리더라면 미래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서 답을 구하는 자세, 뉴노멀 시대 인사조직 관리의 기본이다.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장려상 수상작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해외진출의 계기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했다. 일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으레 그렇듯, 나 역시 애니메이션을 보며 일본 생활에 대해 동경과 환상을 품게 되었다. 공부는 뒷전, 부모님의 속을 태우면서도 일본 매체를 즐기며 나도 언젠가 저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해왔다.

든든한 준비로 해외 취업의 발판을 마련하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능과 재수, 도망치듯 시작한 군 생활, 수능 재도전을 포기한 뒤 복학까지... 자포자기했던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것은 교내 일본어 동아리에 가입한 순간부터였다. 적극적인 대외 활동과 일본어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성과를 쌓다 보니 어느새 동아리 회장까지 맡게 된 나는 한 선배의 조언으로 나가사키 외국어 대학교에 교환 유학을 떠나게 된다. 짧은 1년 동안 일본에서 공부하는 물론 수업 보조, 동아리, 일식당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도전 의식이 생겼고, 귀국 후 취업 준비생으로서 일본행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당시 내게 가장 부족한 것은 '정보'라 생각했기에 그 길로 상반기에 열리는 월드잡플러스 해외취업 설명회에 참가했다. 그곳에서 일본 취업 현황 및 일본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모의 이력서 작성 및 면접의 기회도 얻었다. 이후 월드잡플러스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여했을 때, 열 군데 이상의 기업에서 면접을 볼 기회가 생겼다. 첫 면접에서 쓴맛을

보며 좌절을 느끼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취업 준비에 매진하였다. 부족한 점을 하나둘 채워가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결과, 4곳의 회사에 최종 합격하는 영광을 거머쥐었고 2020년 4월, 그중 한 곳인 타임즈 모빌리티 입사가 결정되었다.

일본 회사생활에 적응하며 또 다른 꿈을 꾸다

현재 내가 근무하고 있는 '타임즈 모빌리티'는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주차장 회사인 타임즈24와 같은 '파크24' 그룹 계열로, 렌터카 및 카셰어링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차량관리부 일반사무직에 처음 배정되었을 당시 나는 전화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모자란 모습을 보여주었고, 스스로도 큰 좌절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를 성장의 기회라 생각하며, 실수하더라도 뭐든지 배워야겠다는 마

음가짐으로 회사 생활을 이어 나갔다. 부서 내 전화는 전부 먼저 받으려 노력했고, 업무 중 실수한 부분을 메모하여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궁리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나는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성과를 인정받게 된다. 단순 서류 작업 업무에서 벗어나 거래처 및 관련 부서와 직접 교섭하는 업무를 배정받게 된 것이다.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차량을 세워둘 주차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차 구매가 불가능하다. 현재 내 주 업무는 이러한 등록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자동차 판매사와 서류 제출 관련 기관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느덧 입사 3년 차, 내겐 인생의 중대한 목표가 생겼다. 바로 일본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소유주가 되는 것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업무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공인중개사 시험과 행정서사 시험 등을 준비, 부동산과 주차장에 관한 지식을 쌓아가고 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모든 갈림길에서 내가 했던 선택,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그 선택들에 매일 감사함을 느끼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간다.

※ 2022년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지면 관계상 실제 후기 내용을 각색하여 짧게 전합니다. 자세한 후기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서 확인하세요!



여행의
새로운 가치를 찾다

울산착한여행

여행의 즐거움 이면엔 종종 지역민의 불편과 불행이 따른다. 이에 여행자와 여행지의 지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생겨났다. 즉 여행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쓰는 것이다. 울산에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울산착한여행 강선행 대표다.

어떻게 울산착한여행을 설립하게 되셨나요?

저는 예전부터 여행을 정말 좋아했어요. 전공이나 하던 일과도 무관했지만, ‘공정여행’을 알게 되자마자 매력을 느꼈죠. 당시 매주 울산에서 서울까지 올라 공정여행 기획과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좋아하는 ‘여행’을 통해 사회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 후 2018년, 마침내 울산착한여행을 설립하며 지역 최초의 공정여행사로서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착한여행의 문을 연 후 가장 먼저 ‘착한 토크쇼 어바웃 공정여행’이라는 토크콘서트를 기획해 당시 지역민들에게 낯선 개념이었던 공정여행을 알렸어요. 이후 코로나라는 위기가 찾아왔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견뎌냈으며, 그 결과 지난 2022년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로 선정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공정여행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공정여행은 여행자와 여행 지역 주민이 모두 함께 행복한 여행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착한여행’이라고도 합니다. 공정여행에서 여행자는 지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존중하며, 주민들은 여행자가 지역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런 점에서 공정여행은 책임여행이자 마을여행이기도 합니다. 즉 공정여행의 의의는 여행지 그 자체와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동시에 여행자도 더 큰 가치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지속가능한 여행’



#상생스토리

매월 상생스토리에서는 공단과 PRESG 업무 협약을 맺은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추천으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소개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들을 응원해주세요.



울산착한여행

대표자 강선행
사업 여행사업
공정여행, 교육여행, 착한여행,
연수프로그램 등
주소 울산 중구 새즈문해거리27, 301호
문의 052-258-0325





을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울산착한여행은 여행의 새로운 기준은 '착한 여행'이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이처럼 지속가능한 여행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울산착한여행은 어떤 일을 하나요?

울산착한여행은 공정여행사로서 공정여행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특별한 콘텐츠를 발굴해 일반 여행자를 위한 투어나 기관, 단체 등을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지요. 성심성의를 다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다 보니 만족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울산착한여행과 울산 역사전문가가 함께 기획한 마을여행 프로그램인 '울산 애(愛) 한바퀴'는 2021년 울산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직무연수 프로그램으로 처음 진행하여 참가자 99% 이상에게 만족했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어요. 울산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프로그램이었던 울산 애(愛) 한바퀴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에 선정돼 2022년 6가지 테마로 즐기는 마을여행으로써 다시 한번 운영된 바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오셨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주신다면요?

울산착한여행이 만든 첫 번째 상품인 '보크닉'은 울산 동구 바다의 아름다운 자연과 낚싯배를 운영하는 어민을 보며 떠올린 아이디어였어요. 대왕암과 슬도를 바다 위 보트에서 또 다른 시선으로 만나며 선장님이 들려주는 지역 이야기를 듣고, 맛있는 것도 먹는 해상 피크닉 프로그램이죠. 한편, '임규동과 함께하는 태화강국가정원 한 바퀴'는 태화강 대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SNS를 통해 그곳의 식생을 일기 쓰듯 담아내셨던 임규동 선생에게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또 하나, '차별과 혐오를 넘어 새벽을 여는 그들의 향연'이라는 체험프로그램은 이른 새벽 대숲 위로 날아오르는 떼까마귀를 관찰하고 지역민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세미조식을 먹는 구성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투어 중 하나지요. 물론 울산 외에도 부산, 경남 등 다양한 지역을 배경으로 한 상품을 기획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몽골 등 해외 공정여행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고요. 고객이 원하는 지역이나 테마가 있다면 관련된 공정여행을 새로이 디자인해드리기도 합니다.

울산착한여행이 디자인한 여행의 특징점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스팟을 둘러보기만 하면 다른 여행과 다

를 게 없지만,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여행이라면 같은 장소라도 전혀 다른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울산착한여행의 투어는 어떻게든 지역민들과 여행자를 연결시켜요. 태화강생태공원을 잘 아는 공정여행의 동반자 가디언에게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떼까마귀를 보러 가서 독특한 이력의 조류학 박사를 만나는 것 등 사람과 소통하는 여행을 만드는 거죠. 그저 정해진 일정대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는 여행과는 전혀 달라요. 이처럼 공정여행을 한다는 것은 지역민들과 어우러지며 여행지 자체를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우선 공정여행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올해 울산착한여행은 경남관광상품 개발 전담여행사로 선정되어 통영섬 호핑투어, 거제어부 등의 해양레저 상품 등을 기획했는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지역에서 특별한 콘텐츠를 개발·운영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착한여행자 센터를 구축하는 공간사업도 꿈꾸고 있어요. 울산을 찾는 분들에게 지역의 좋은 명소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우리 해설자들을 연결하는 등 하나의 여행 허브이자 플랫폼으로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고 있어요. 경제적 상

황이 여의치 않은 취약계층을 위한 여행지원사업과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교육여행, 위기·취약 청소년을 위한 체험여행 등을 기획하고 있지만 이를 지속해 나가려면 예산 마련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공정여행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사람이 착한여행을 해야겠지요. 여행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울산착한여행이 이를 위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판로 개척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생협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홍보센터는 예산·인력 등의 이유로 제품홍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을 위해 마케팅·홍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QR코드를 인식해보세요!



아리랑 가락 찾아 떠나는 강원도 정선

굽이굽이 맑은 동강이 흐르고, 푸근하게 반겨주는 산이 있으며, 첫 소절만 들어도 마음이 몽클해지는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한국인이자면 누구나 마음속에 그리는 고향 같은 곳이 아닐까. 이번 9월에는 민족의 얼이 녹아있는 아리랑을 따라 정선을 여행해보자.



아리랑열차 타고 아리랑시장으로

정선에 가면 유난히 아리랑을 탄 명칭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선아리랑열차다. 아리랑열차는 지난 2015년 개통한 관광열차로, 청량리역에서 시작하여 정선을 지나 아우라지역을 종착역으로 한다. 장거리 열차로는 최초로 좌우에 넓은 유리창이 설치되어, 달리는 동안 산과 계곡, 강과 들판으로 어우러진 강원도의 수려한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아리랑열차 탑승객 대부분은 정선아리랑시장으로 향한다. 시골 오일장으로 출발한 아리랑시장은 석탄산업의 쇠퇴와 함께 한때 침체기를 겪었으나, 아리랑열차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아리랑시장은 평소에는 상설시장이 서고, 끝자리가 27일인 날에 오일장이 열린다. 오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계절 특산물을 들고 나온 노점들로 길이 북닥북닥해진다. 쌉싸래한 향이 입맛을 돋우는 곤드레밥,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수수부꾸미, 콧등을 칠 정도로 소리 내며 먹어야 한다는 콧등치기 등 정선을 대표하는 먹거리도 놓치지 말자.





정선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이자 2012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강원도 전통 민요로, 3대 아리랑(정선·밀양·진도아리랑)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한다. 정선군 아리랑센터에 자리한 아리랑박물관은 아리랑의 역사와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5천여 점의 자료가 전시된 곳이다.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과 특별전을 운영하며, 정선아리랑뿐만 아니라 전국팔도의 아리랑을 들어볼 수 있다. 아리랑센터 인근에 자리한 아라리촌은 옛 선조들의 주거문화를 재현한 마을이다. 대마의 껍질을 벗겨 지붕을 이은 저릅집을 비롯하여 너와집, 굴피집, 돌집 등 정선의 전통민가가 전시되어 있다. 눈이 많이 내리고 바람이 심한 강원도 산간의 주거 형태는 다른 지역과 달라 흥미롭다. 정선의 역사 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해설과 함께 옛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라리학당에서 정선아리랑을 배워볼 수도 있다.

K-컬처의 원조, 정선아리랑제

이번 9월에 정선을 방문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오는 9월 14일부터 4일간 정선지역 최대 축제인 정선아리랑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정선아리랑의 전승과 보전을 목적으로 지난 1976년부터 시작된 정선아리랑제는 아리랑을 주제로 한 가장 오래된 축제다. 특히 K-컬처에 대한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선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제48회 정선아리랑제’는 ‘국민고향 정선! 가고싶다 정선아’를 주제로 정선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정선아리랑의 근원 설화에 등장하는 칠현들의 애국 충절을 기리는 칠현제례를 시작으로, 정선아리랑 보유자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민속 시연 및 체험이 열린다. 이번 가을, 정선아리랑제와 시작해 보면 어떨까.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해 온 아리랑의 진면모와 현대적으로 해석된 아리랑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아리랑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둘러보면 좋은 동네방네

정선의 자연을 찾아서



아우라지

아우라지란 두 갈래 물이 한데 모여 어우러지는 나루라는 뜻이다.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로 알려진 아우라지는 구절리에서 흘러오는 구절천과 임계에서 흘러오는 굴지천이 만나 생겼다. 웅장한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풍경과 강 줄기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초승달 모양의 다리가 인상적인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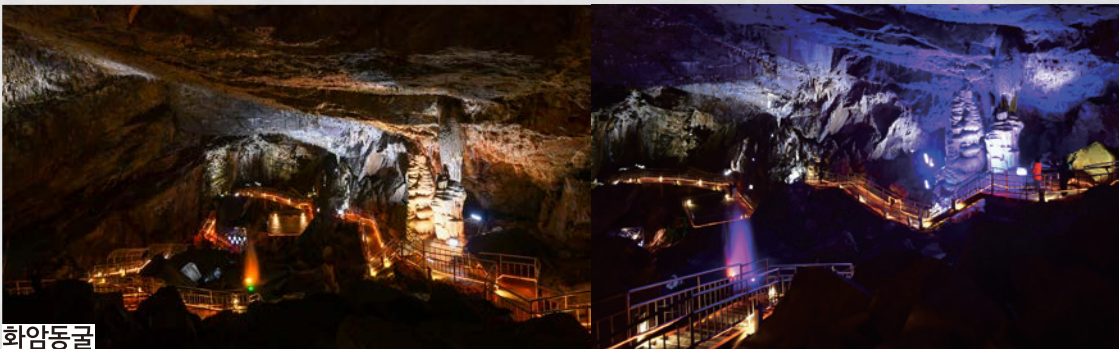
강원 정선군 여량면



아리힐스 스카이워크

해발 583m 병방치 절벽 끝에 투명 강화유리로 만든 길이 11m의 U자형 스카이워크가 설치되어 있다. 한반도 지도를 닮은 밤섬을 동강이 감싸 안고 흐르는 비경을 만날 수 있는데, 가을이면 알록달록한 단풍이 더해져 절경을 이룬다. 동강의 풍경을 더욱 스릴 넘치게 즐겨볼 수 있는 집와이어 체험도 추천한다.

강원 정선군 정선읍 병방치길 225



화암동굴

국내 최대의 석회암 동굴로, 1920년대부터 금을 캐던 금광에서 굴을 파 내려가던 중 발견되었다. 현재는 폐광된 금광 구역과 자연동굴을 연결하여 ‘금과 대자연의 만남’을 주제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탐방 거리가 1.8km에 이르는 데다, 가파르고 경사진 곳이 많아 모노레일을 이용해 탐험할 수 있다.

강원 정선군 화암면 화암동굴길 12-8

지구를 살리는 작은 습관

MZ세대의 일상, 제로 웨이스트

최근 MZ세대에서 쓰레기 배출을 '0'에 가깝게 최소화하는 움직임인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열풍이 불고 있다. 이제는 친환경적인 것을 넘어 '힙'한 일이 된 제로 웨이스트 실천법을 배워보자.

돈보다 가치! 미닝 아웃 트렌드

한 조사에 따르면 2030세대 10명 중 8명은 '가치 소비자'이며, 기업의 ESG 활동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는 '환경'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소비란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맞는 제품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소비방식으로,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가치관과 사회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고 하여 '미닝 아웃(Meaning Out)'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성장관리 앱 그로우가 MZ세대 9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잘 드러났다. '가치 소비자인가?'를 묻는 질문에 79%가 '그렇다'라고 답했으며, '가치 소비'에 대한 관심은 평균 3.8점(5점 척도)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최근 각광받는 친환경 활동 중 MZ세대가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는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프리,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 비건, 플로깅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2개 이상 실천하고 있는 응답자가 45%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친환경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제로 웨이스트 관련 용어 알아보기!

플로깅 Plogging

'줍다'라는 스웨덴어 플로카 업(plocka up)과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며 길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체육활동과 자연보호활동이 합쳐진 개념

업사이클링 Upcycling

업그레이드(upgrade)와 리사이클(recycle)의 합성어로, 폐기물을 새롭게 디자인해 예술적·환경적 가치가 우수한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방식

일상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

한편, 공공주택 단지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를 거부한 '2018년 4월 쓰레기 대란' 이후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던 '제로 웨이스트'가 점차 언급되기 시작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인 제로 웨이스트란 그 이름처럼 폐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자는 것은 쓰레기 배출을 제로, 즉 0에 가깝게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모든 제품과 포장 그리고 자재를 태우지 않고,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토지·해양·공기로 배출하지 않으며, 책임 있는 생산 및 소비 그리고 재사용과 회수를 통해 모든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단어의 뜻 그대로 쓰레기를 하나도 만들지 않고 살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제로 웨이스트를 반드시 실현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불필요한 일회용품을 하나 덜 쓰는 것처럼, 실천 그 자체에 의미를 두며 나만의 방식을 찾아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는 MZ세대가 적극 실천하는 업사이클링과 플로깅처럼 색다른 방식으로 친환경 라이프를 실천해보길 추천한다.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해준은 물론, 개개인에게도 지구를 위한 작지만 위대한 습관이 되어줄 것이다.

제로 웨이스트를 지금 막 시작한다면?

① '소비하는 날' 정하기

소비를 하다보면 자연스레 쓰레기가 발생한다. 포장재 등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하는 날을 정해 소비 자체를 줄여보자.

② 손수건 휴대하기

제로 웨이스트 필수품, 손수건. 기능은 많고, 가벼워서 어디든 들고 다니기 좋다.

③ 에코백 만들기

에코백을 사기 전에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살펴보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헌 옷으로 직접 만들어 보자.

④ 개인 식기 챙기기

개인 식기를 챙기면 일회용 숟가락, 나무젓가락 등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⑤ 용기와 수고 장착하기

제로 웨이스트에는 '수고'와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부담 없이 즐겁고 행복한 만큼만 시도해보자.



식품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푸드테크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푸드테크'다.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평가받는 푸드테크의 현주소를 통해 식품산업의 미래를 그려본다.

FOOD TECH



#푸드테크 #식량 위기 #대체육 #대체사료 #세포배양육 #식용곤충

#푸드테크 #식량 위기

식량 위기 속 푸드테크에 주목하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배경은 2067년의 지구, 기상이 변과 병충해로 식물 재배가 어려워지면서 식량부족 사태로 인류는 위기를 맞는다. 더는 영화 속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악화되는 기후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 그리고 세계 각지의 분쟁 등이 얹히면서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푸드테크가 떠오르고 있다. 푸드테크란 음식을 뜻하는 Food와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가 접목된 신산업분야로, 생산부터 보관, 유통,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식품 관련 분야의 기술적 발전을 의미한다.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던 푸드테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류건강, 동물 복지, 지구환경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푸드테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022년 푸드테크 산업의 미래를 모색할 한국푸드테크협의회가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대체육 #대체사료

고기 없는 고기, 대체육의 시대

대체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싹튼 것은 축산업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하는 온실가스 배출원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다. 소나 양 같은 반추동물이 먹이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축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콩이나 밀, 녹두 등 주로 식물성 재료를 이용해 고기의 맛과 영양, 색을 재현한 대체육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지구는 물론 동물에게도 이로운 대체사료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호주의 퓨처피드는 바다고리풀이라는 해초로 사료첨가제를 개발했다. 육류의 맛과 품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반추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생성을 80% 이상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포배양육

동물 세포로 키운 배양육의 탄생

단순히 고기의 맛과 향을 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포를 배양해서 만드는 배양육도 등장했다. 세포배양육은 동물을 사냥 및 사육하거나 도축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세포를 배양해 얻는 육류를 가리킨다. 지난 2020년 싱가포르를 세계 최초로 배양 닭고기의 판매를 승인한 국가로, 배양육을 도입하는 식당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육류 섭취를 지양하자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처럼, 바다를 살리기 위해 해산물 섭취를 줄이자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바다의 오염과 수온 상승으로 인해 수산물의 어획량과 종류가 달라지고 있는 데다, 과도한 어업 활동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어서다. 홍콩의 푸드테크 기업 어반트미트는 세계 최초의 세포배양 생선 부레를 개발했다. 기존의 부레와 비슷한 맛을 내면서 실제 어류에서 채취한 풍부한 단백질, 칼슘, 인과 같은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식용곤충

식용곤충까지...점점 커지는 푸드테크 시장

곤충은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미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우수한 자원으로 주목받는다. 더욱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며 분뇨 발생이 적어 대기·수질·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 식재료다. 네덜란드의 프로티팜은 매년 1,000톤의 딱정벌레목 곤충인 식용 거저리를 키운다. 분말로 만들어 식품에 활용하거나, 고기처럼 요리할 수 있게 단백질 덩어리로 만든다. 곤충산업 육성법이 제정된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식용곤충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며 식품업체들도 앞다퉂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처럼 한때 새로운 개념의 음식으로 여겨지던 대체식품은 우리 일상 곳곳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3D 프린팅, 나노테크, 세포공학, 스마트 파밍 기술 등 좋은 품질의 대체식품을 짧은 시간 내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푸드테크, 앞으로 펼쳐질 식품산업의 미래가 기대된다.

푸드테크, 이런 직업에 도전해보세요

3D 식품 프린터 요리사

3D food printing
engineer



무슨 일을 하나요?

식품의 영양과 구성 비율 등을 반영하여 3차원으로 재구성하고, 3D프린터를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출력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
- 도전 의식과 창의성이 높다!
- 손을 사용하는 활동에 관심이 있다!

도움이 될 자격 Tip

양식조리기능사

양식메뉴 계획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 구매, 검수, 보관 및 저장하며 맛과 영양을 고려하여 위생적으로 음식을 조리하고 조리기구와 시설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진출분야

식품회사, 식품 제조공장, 연구소, 음식점 등

곤충컨설턴트

Entomology
Consultant



무슨 일을 하나요?

곤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곤충을 사육하거나 혹은 사육하려는 사람에게 컨설팅 등 지원 업무를 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관찰하거나 탐구하기를 좋아한다!
- 곤충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깊다!
-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도움이 될 자격 Tip

곤충사육사

한국동물구조연맹, 미래도시농업 등에서 시행되는 민간자격으로, 곤충 사육에 필요한 시설관리와 함께 곤충을 사육 및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진출분야

연구기관, 관광시설, 체험학습장 등



프로그램

투데이 고용플러스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후 8시 30분

직장인을 노리는 증후군 주의보!

매일 쏟아지는 업무에 바쁘고 스트레스에 치이는 직장인.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증후군의 종류와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일하고 싶어! 슈퍼 직장인 증후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에 중독되는 현상인 슈퍼 직장인 증후군. 일에 과하게 집착하며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일하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는 것을 뜻한다. 자기 일에 빠져서 만족감을 느끼는 워커홀릭과는 달리, 슈퍼 직장인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군가 내 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생각과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일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불안감에 잠식당하다 보면 일과 일상의 구분이 어려워지며 만성피로가 오고, 결국 번아웃에 이르기기도 한다.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식적으로 일과 여가를 구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취미활동을 가지면 시간을 꼭 뺄 수밖에 없어서 슈퍼 직장인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왜 나한테만? 와이미 증후군

직장에서 업무와 인간관계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왜 나한테만 그래?” 하는 억울함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 일상이 반복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을 와이미(why me?) 증후군이라고 한다. 와이미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은 직장 상사에게 질타받거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 등은 모두 내가 아닌 외부의 잘못 때문이라고 여기며 불만을 가진다. 자신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우울감과 좌절감을 느낀다.

일종의 슬럼프 현상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와이미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원인을 찾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 만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웃는 얼굴의 가면을 쓴 듯 우울한 마음을 내색하지 못하고 밝게 웃는 사람들이 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우울증을 앓는 것인데, 이러한 습관이 지속되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감

정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하는 심리적 상태를 뜻한다. 성과 경쟁에 내몰린 일반 직장인부터 콜센터 상담원, 제품 판매원, 승무원, 은행 창구 직원들과 같이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강요받는 서비스업 종사자까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 지속되면 나중에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기 쉽다. 또한 이는 불면증, 소화불량은 물론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가볍게 여겨서 안 된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동료나 친구, 전문가 등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좋다.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거절 훈련을 하고, 심지어는 일기장에 화난 마음을 표현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증상을 없앨 수 있다.

자가 진단 테스트

나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 ① 너무 길거나 너무 짧은 수면시간
- ② 식욕 감소 및 체중의 변화
- ③ 과음의 반복
- ④ 행복한 얼굴 강조
- ⑤ 대화 시 절대적 언어(항상, 절대 등) 사용
- ⑥ 가끔 도움을 요청해도 금방 행복한 얼굴 유지
- ⑦ 심한 감정 기복
- ⑧ 삶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



한국직업방송을
만나는 방법



SK broadband 273번, KT Olleh 252번, LG U+ 251번, skylife 189번, T브로드 210번, CJ헬로비전 230번, 딜라이브 256번

- 홈페이지·유튜브 실시간 방송시청 또는 VOD 다시보기(모바일 기기도 가능)

- 세부 시청 방법 및 지역별 채널번호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공단 홍보미디어실(052-714-8196)로 문의

HRD NEWS

2023 September vol. 327

01
HRD

공단, 일회용품 제로(Zero) 챌린지 동참



02
HRD

2023 GLOBAL TALENT FAIR 개최



8월 18일 공단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공공기관·단체·국민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약속하는 내용을 SNS에 게시하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이번 챌린지 동참은 공단의 친환경 경영 활동에 부합한다. 공단은 친환경 및 탄소중립을 위해 2022년 디지털 자격시험센터 구축과 기술자격 필기시험의 CBT 도입, 모바일 자격증 발급을 통해 종이 문제지 285만 장과 운송비용 3,400만 원 상당을 절감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시험 시행 후 남은 재료 등을 활용해 2차 가공하여 복지시설에 기증하는 업사이클링도 전개하고 있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오늘의 편리 위해 사용한 일회용품은 내일의 불편을 가져 올 것”이라며, “공단은 환경 보호에 앞장서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KOTRA, 국립국제교육원과 공동 주관하는 ‘2023 GLOBAL TALENT FAIR’을 8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GLOBAL TALENT FAIR는 ▲글로벌일자리대전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가 최초 통합된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취업박람회다. 국내외 382개의 구인기업이 참가하고, 사전 등록한 6,500명의 청년이 박람회를 방문했다. 공단이 주관하는 글로벌자리대전에는 114개 해외기업이 참여하여 1,000여 명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과 상담을 진행했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해외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GLOBAL TALENT FAIR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고 취업을 연계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03
HRD

공단-재단법인 교육의 봄, 직무능력중심 채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04
HRD

2023년 일학습병행 박람회 개최



05
HRD

공단, ‘2023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 개최



지난 8월 25일 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은 재단법인 교육의 봄과 직무능력중심 채용 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직무능력중심 채용 확산을 위한 ▲기관 상호 정보 교류 ▲교육 및 세미나 공동 개최 ▲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협력 등이다. 공단 표준원은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공정채용 문화확산 등 국정과제를 수행하며 직무능력중심 사회 구현에 힘쓰고 있으며, 교육의 봄은 ‘출신학교에 의존하지 않는 기업의 채용 문화를 확산해 교육에 봄을 이끌고자 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의 핵심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발해 사회 전반에 직무능력중심 채용이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일학습병행 대국민인지도 향상을 위해 ‘2023년 일학습병행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특성화고, 대학 등 200여 개 기관이 함께하는 첫 행사로, 학교들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2회로 나누어 8월 수도권(서울)에서 진행했으며, 11월에는 경상권(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람회에서는 특성화고 단계인 도제학교를 중심으로 전문대 수준의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4년제 대학 등 일학습병행 사업 전 유형을 소개하며, ▲훈련직증 체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을 활용한 훈련장비 실습 ▲취업정보 제공·진로 상담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제공한다.

공단은 ‘2023년 청년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을 9월 24일까지 개최한다. 공단은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전을 개최, 10년간 총 426명의 청년이 수상했다. 공모전은 최근 5년 내 해외취업, 인턴, 창업, 봉사 등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월드잡플러스(worldjob.or.kr) 누리집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진출 도전, 노력, 성장의 이야기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다양한 직업 경로를 접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iRD Korea 독자이야기

독자 여러분의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참여기간
9월 25일(월)까지

올해 꼭 배우고 싶은 것, 또는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HRD KOREA」 이번 호 테마인 직업능력의 달에 관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섯 분을 추천해 상품(3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vol.327 HRDKorea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왼쪽의 QR 코드를 인식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만드는 HRD Korea! 사업 참여 스토리 공모

독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단 사업에 참여 경험 이야기 등을 사보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훈련 참여 스토리, 국가기술자격 취득 스토리 등...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모 분량 A4용지 1장 내외(글자수 약 2천자)
보내실 곳 dyy927@hrdkorea.or.kr
응모 기한 9월 25일(월)까지



HiRD Korea
2023년 8월호
당첨자

—
2023년 8월호 의견 일부를
요약해 전합니다.

송병률 | 박순화 | 최영수 | 임용주 | 김영지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수십 년째 애독자로 어느새 80대 후반이 되었습
니다. HRD뉴스를 읽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일자리 창출과 인력 수급의 막중한 책무를 지고
열심히 사업 완수에 매진함에 뜨거운 박수를 보
냅니다.

송병률

● 지방기능경기대회 담당자로
서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숙
련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
고 그 가치를 빛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장을 마련할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임용주

● 이숙희 대표의 성공스토리가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신념과
여성의 모든 장애물을 오직 기술과 실력으로 뛰
어넘어 강소기업의 꿈을 이룬 그에게 응원을 보
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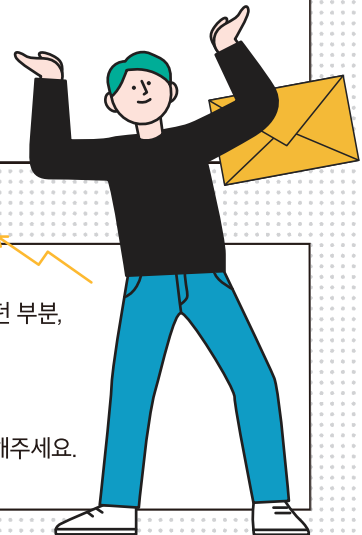
박순화

● 영국에서 10년 동안 거주하
면서 기술직이 우대받는 사
회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
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숙
련기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위상이 더욱 높아지
길 바랍니다.

김영지

● 산업의 체제가 변화하여도 숙련기술은 생산 현장
을 밝히는 불꽃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숙련
기술인이 사회 전반에서 우대받는 풍토가 형성될
때 우리의 미래는 '희망'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최영수



HiRD Korea
이번호는 어떠셨나요?

QR코드, 이메일로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dyy927@hrdkorea.or.kr

*당첨자 안내를 위해 이름,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주세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 제34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2차 빈자리원서접수 (8.31-9.1)	• 기사 제2회 실기시험 2차 합격자 발표	• 기사 제4회 필기시험(9.2-9.17) • 관광통역안내사 1차 시험 • 제9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
3	4	5	6	7	8	9
	• 기사 제3회 실기시험 원서접수(9.4-9.7)	• 기술사 제131회 면접시험 원서접수(9.5-9.8)		• 제23회 소방시설관리사 2차 빈자리원서접수(9.7-9.8) •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빈자리원서접수(9.7-9.8)	• 기술사 제130회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제32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9.9-9.10) • 제34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2차 시험
10	11	12	13	14	15	16
			• 기능사 제3회 실기시험 1차 합격자 발표 • 기능장 제74회 실기시험 1차 합격자 발표	• 제22회 청소년상담사 1차 빈자리원서접수(9.14-9.15)		• 제23회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 • 제2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17	18	19	20	21	22	23
• 제25회 경비지도사 1, 2차 원서접수(9.18-9.22) •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1, 2차 원서접수 (9.18-9.22)	• 기능사 제4회 필기시험 (9.19-9.24)	• 기능사 제3회 실기시험 2차 합격자 발표 • 기능장 제74회 실기시험 2차 합격자 발표 • 검수사, 검량사, 감정사 2차 합격자 발표 • 제13회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3차 합격자 발표 • 제18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 1차 합격자 발표	• 제9회 수산물품질관리사 2차 빈자리원서접수(9.21-9.22)	• 기사 제4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제22회 청소년상담사 1차 시험
24	25	26	27	28	29 추석	30

※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 • 원서접수 일정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미리 알아보는 10월 일정	○ 국가기술자격	○ 국가전문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사 제3회 실기시험(10.7-10.20)• 기사 제4회 실기시험 원서접수(10.10-10.13)• 기능사 제4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10.11)• 기술사 제131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10.11)• 기능사 제4회 실기시험 원서접수(10.16-10.19)• 기술사 제131회 면접시험 원서접수(10.17-1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8회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2차 합격자 발표(10.4)• 제31회 청소년지도사 1차 합격예정자 발표(10.4)• 제9회 수산물품질관리사 2차 시험(10.7)• 제11회 행정사 2차 시험(10.7)• 관광통역안내사 1차 합격자 발표(10.11)• 제34회 공인중개사 1, 2차 빈자리원서접수(10.12-10.13)• 제24회 박물관및미술관준학에서 원서접수(10.16-10.20)• 제18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 2차 원서접수(10.16-10.20)• 제34회 감정평가사 2차 합격자 발표(10.18)• 제40회 관세사 2차 합격자 발표(10.18)• 제60회 변리사 2차 합격자 발표(10.25)• 제34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차 합격자 발표(10.25)• 제22회 청소년상담사 1차 합격자 발표(10.25)•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1, 2차 빈자리원서접수(10.26-10.27)• 제34회 공인중개사 1, 2차 시험(10.28)
	<p>* 부득이한 경우 시행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큐넷을 꼭 참고해주세요.</p> <p>* 자격시험 시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조하세요.</p>	



www.hrd4u.or.kr



2023

직업능력의 달

능력은 새롭게, 내일을 빛나게 !



영예의 장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인식 확대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 9월 5일(화), 더 플라자 서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 9월 19일(화), 더 플라자 서울

공유의 장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답찾기 및 최신 트렌드 공유

제 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 9월 25일(월) ~ 26일(화), 코엑스

직무능력 세미나
- 9월 25일(월), 코엑스

경연의 장

기업 현장에 기반한 우수 직업능력개발 사례 확산

과정평가형 우수교육훈련과정 경진대회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 9월 25일(월), 코엑스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 국가자격 취득자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 9월 26일(화), 코엑스

체험의 장

건전한 직업관 형성 및 역량개발에 대한 공감과 확산

스타기술인 토크콘서트
- 9월 25일(월), 코엑스

'인업! 웹툰 잡!카데미' 체험존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 체험)
- 9월 25일(월) ~ 26일(화), 코엑스 아셈볼룸

주최 | 고용노동부 주관 |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